



## 調整期를 맞이한

# 프랑스 原子力開發

—急速한 開發趨勢에 不安感—

프랑스 대통령에 사회당 후보의 F. 미테랑氏 당선으로 프랑스의 정책은 內政·外交의 양면에서 대전환이 예상되는데 그 중에서도 선거의 焦點이 되었던 원자력 에너지 정책의 행방이 주목된다.

미테랑=社會當은 원자력 반대는 아니다. 그러나 원자력을 새로운 에너지(태양에너지 바이오머스, 地熱) 등장까지의 과도적 에너지로 보고 안전성이나 경제성이 現狀에서 그 개발을 減速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선거전에서는 1982년 이후의 원자력 계획의 민주적 토의와 국민투표의 실시를 공약하였으며 원자력 부진에 따른 대책으로 90년까지 석탄 화력 약 1300만KW(석탄 생산 목표 3천만톤) 건설방침을 밝혔다. 지스카르데스탕前大統領의 정책이었던 高速增殖炉의 조기 실현화에도 반대였다.

한편 사회당계의 僑勞動民主同盟(CFDT)도 급속한 원자력 개발은 失業을 증가시키며 에너지의 낭비, 경기후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다.

원자력 개발이 왜 失業과 불황을 초래하는지 그 이유는 잘 알 수 없으나 원자력의 고용효과가 원래 낮은데다가 일시적으로 건

설고용이 증대되더라도 나아가서는 전기 산업의 改編으로 고용이 감소된다는 견해인 것 같다.

CFDT는 정부의 전력수요 예측에도 비판적이며 90년에 4천억KWH의 전망은 1천억 KWH가 많으며, 그만큼의 要투자액 140억달러를 다른 産業으로 돌리면 더욱 효과적인 사용용도가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테랑氏의 당선에는 프랑스 국민 사이에 퍼져있는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작용한 것 같다. 너무 빠른 개발 速度가 萬全한 것이 못된다는 불안감을 일으키게한 것이다. TMI 사고때만 해도 정부는 炉설계가 다르다는 점을 들어서 “프랑스炉의 안전”을 誇示하였고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으나 최근 공표된 의회 위원회의 보고서는 事故방지대책의 긴급성을 지적하였고, 운전 보안 요원의 재훈련, 발전소 주변 연락망의 정비등을 권고하고 있다.

라·아어그의 재처리 공장에도 작년의 화재사고, 위탁 계약에 의한 외국의 既使用燃料를 대량 搬入하는등 논쟁의 餘地가 있다. 이곳의 노조는 CFDT의 지도하에 있으며 現在까지의 재처리 실적(79년 77톤, 80년 104톤)

이 최대 능력의 반 정도밖에 안된다는 점을 중시하고 확장계획의 타당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公社(COGEMA)측은 ① 현재로서 처리 실적이 낮은 것은 연료가 소형이고 많은 종류로서 취급이 곤란하며, ② 新 연료 가공공장(輕水炉用)에서는 재처리가 쉽도록 연료설계를 표준화 한다, ③ 운전 경험에 기대한다 라고 反論을 제기하나 복잡한 조정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며 개발 速度가 문제화 될 가능성도 보여지고 있다.

프랑스 국내정책의 전환은 그 수출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은 틀림없다. 지스카르데스탕 前대통령은 비교적 관대한 保障措置조

항으로 판로를 확대하여 프라마툼을 최대급의 원자로 수출 메이커로 육성하였다. 지난 4월에는 2基의 炉 수출에 따라 우리나라와 科學協力協定에 조인하였고, 또 目前에 멕시코의 大型入札을 앞두고 있으며, 캐나다의 원자력 碎氷船 계획에도 최후의 應札者로서 남아 있다.

그러나 미테랑 정권의 안전성 재검토로 수출 지향에 영향을 미칠 것은 피치 못할것 같다.

프랑스의 원자력이 하나의 반성기 = 조정기를 맞이한 것은 확실하나 우리나라의 9 10호기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 美国에너지省 (DOE) 改編의 行方

금년 1월 레이건 정권이 발족한 후 미국 에너지省(DOE)의 改廢문제가 주목되었으나 현재로서는 내부의 機構改革만을 하고, 에너지省은 그대로 존속되는 것 같다.

DOE개편의 제 1 단계로서 금년 2월에 에드워즈長官은 종래의 「資源利用」과 「政策·評價」担当의 二次管補의 자리를 폐지하고 「환경보호·안전·긴급時對應」, 「議會·政府間·會衆問題」 및 「관리·집행」담당의 세 차관보의 자리를 만드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들은 모두가 ① 현실적인 에너지 價格정책, ② 원자력 개발 등을 방해하는 規制·制度문제의 해결, ③ 국내 에너지 생산에 대한 원조폐지, ④ 에너지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역할 限定—을 앞세운 개편으로 되

어 있다.

上院의 정무문제 위원회 에너지 소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에드워즈 DOE장관은 「入閣 당시 DOE는 대단히 복잡하고 거대한 조직으로 팽창되어 있었고, 에너지 정책의 혼란을 나타내고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향하여 기구개편에 착수하고 있음을 밝혔었다.

레이건 정권은 석유가격 통제와 철폐와 에너지 연구개발에 대한 연방정부지출의 새로운 戰略을 표방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에너지省의 폐지 또는 조직·인원·운영 면에서의 효율적인 개선이 요청되었다.

에드워즈 장관은 상원 소위원회에서의 증언에서 에너지省의 개편은 ① DOE장관 권